고기부터 계란까지 들썩…설 물가 부담 커졌다

축산물 가격 급등…한우 공급량 감소에 ASF·AI 발병 등 영향

정부, 축산물 공급 늘리고 할인 행사 지원 등 설 물가 잡기 총력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가격이 지속 상승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설 명절은 한우, 돼지고기, 계란 등 설 성수품에 포함된 축산물 소비량이 급증하는 유통 4대 대목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치솟은 축산물가가 회복세에 접어든 소비심리를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설 명절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산물 공급을 대폭 늘리고, 유통업체를 통한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다봄'에 따르면 돼지고기 삼겹살(100ｇ)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달 28일 기준 2691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6.0%, 11.9% 상승했다.

같은 기준으로 목심(2479원)과 앞다릿살(1576원)도 전년보다 4.6%, 7.8%씩 소비자가격이 올랐고, 평년보다는 각각 10.5%, 18.9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한우는 소비자가격 오름세가 더 가팔랐다. 한우 등심(100ｇ)은 1년 전보다 13.1% 오른 1만 2607원을, 안심(100ｇ)도 1만 5388원으로 7.1% 비쌌다.

이 밖에 장조림 등의 주재료인 양지(100ｇ)는 6734원으로 전년 대비 12.1%, 설도(100ｇ)도 5096원으로 14.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우 가격 상승폭이 컸던 것은 최근 3~4년 새 한우 도매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생산비는 상승하면서 팔 수록 손해를 본 한우 농가들이 사육 마릿 수를 줄이거나 축종 자체를 바꿔 한우 공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체 품목인 수입 소고기 역시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미국산 냉장 척아이롤(100ｇ)은 전년에 비해 12.1% 올랐고, 냉장 갈빗살도 5.7% 상승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지난해 1.2~4.8%였지만, 올해 0%로 적용되면서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며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지난해부터 소비자가격이 지속 상승했던 계란과 닭고기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란 10개 소비자가격은 3928원으로 1년 전보다 20.8% 올랐고, 닭고기(1㎏)도 5.5% 상승했다.

대부분 축산물 가격이 상승한 주요 원인으로는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가 꼽힌다.

한우는 자체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달 강릉, 안성, 포천, 영광 등에서 발생하며 공급량을 줄였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32건이 확진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는 닭과 계란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축산물 소비자가격 상승에 대응해 설 명절을 앞두고,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할인 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설 연휴까지 주말에도 도축장을 운영하고, 농협 출하 물량을 늘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1.4배 늘린 10만 4000ｔ 공급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를 통해 할인행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손 잡고 2월 2일부터 2주 간 한우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할인행사에는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600여 곳이 참여하며, 정상가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매장별 할인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수강생들이 AI를 활용한 고객관리 자동화 강의를 듣고 있다. 〈aT제공〉

aT, AI 활용 농식품 특화 교육 수강생 모집

단기 과정·AI 리더 과정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식품 특화 14개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실무형 교육 과정을 통해 농식품 종사자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식품 기업과 농업 법인의 제조·유통·마케팅 담당자, 청년 창업농 등 데이터 분석, 업무자동화 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농식품 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단기 교육과 장기 교육으로 나눠 운영한다. 단기 과정은 농식품 기업의 빠른 업무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1~2일간 운영되는 13개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 주요 과정으로는 AI 활용 농식품 기업 업무 역량, 농식품 쇼핑몰 상세페이지 AI로 뚝딱!, AI 농식품 마케팅 콘텐츠 부트캠프 등이 있다.

장기 교육은 오는 5월부터 15주 동안 '농식품 AI 리더' 과정으로 운영되며, AI 활용 기술의 심화 학습과 실습을 통해 스마트 농업을 위한 제조부터 마케팅 전 과정에 걸쳐 AI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해당 과정은 빅데이터 기반 소비자 행동 분석, AI 예측 기술 등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배우우며, 최신 산업 동향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외 현장 견학도 포함한다.

교육 신청은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교육은 수원시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된다.

기운도 aT 유통이사는 "올해는 농수산식품 유통 종사자들이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작물재해보험·수입안정보험, 보장 넓히고 부담은 줄인다

오이·시설깻잎 재해보험 포함

할인 세분화에 사고점수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오이와 시설깻잎을 대상 품목에 추가해 78개 품목으로 늘렸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사과, 배, 노지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 5개 품목을 더해 대상 품목을 20개로 확대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 지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난해 운영했던 15개 품목 중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재해 발생까지 투입한 생산비 손실을 보상하던 봄무, 봄배추, 월동무, 월동배추 등 상품을 수확량 손실 보상 상품으로 전환하고, 가입률이 90% 이상인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은 주계약으로 통합하는 등 보장을 강화한다.

또 재배 방식에 따른 생산비 차이를 고려해 시설토마토와 오이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생산비를 차등화한다.

벼, 고추, 단감, 봄배추 등 품목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기간 변화를 고려해 상품별 가입·보장 기간을 현실화하고, 2024～2025년 폭염 피해를 계기로 제기된 보상기준도 개선한다.

특히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는 체계를 마련해 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입자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 구간을 세분화하고, 보험료 조정 요소로 '사고점수'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예측·회피가 불가능한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반복 보상으로 인한 지역별 기본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연령 80세까지 상향·전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지원 범위를 5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원 연령 제한과 병원 선택권 부족 등으로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검진비 지원 연령을 기존 70세까지에서 80세까지로 올리고 시행 지역도 150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51～80세인 1946～1975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지난해까지 시·군·구별로 단일 병원이 정해지고 검진 형태도 병원 방문형 또는 이동 검진형 중 한 가지로 지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시·군·구 내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병원 선택의 폭도 넓혔다.

검진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관할 관청을 방문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농업e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검진 일정과 참여 의료기관은 추후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업e지 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촌진흥청, 농약 등록·시험담당자 교육

농촌진흥청은 "지난 2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농약 등록 및 시험담당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를 비롯해 이화학분석, 약효·약해, 잔류성, 인축독성, 생태독성 등 시험 분야별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시험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농약 제조·수입업체 등록 담당자와 시험연구기관 시험담당자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육 이수증은 2월 중 발부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생들은 농약 등록 기준,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등록 시험 절차 및 시험성적서 작성 요령 등 농약 등록과 시험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았다.

올해 교육은 최근 개정된 농약 등록 기준과 등록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보완 사례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또 시험 결과 보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과 분야별 세부 시험 방법을 현장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특히 현장 수요가 높은 천연식물보호제의 시험성적서 제출 완화 기준과 과수 화상병 및 토양처리제초제를 발골(휴간)에 처리하는 시험법 기준 등을 추가 교육했다.

교육 신청 절차는 매년 1~2월 한국작물보호협회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박상원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과장은 "농약 시험성적서는 농약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시험담당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자료의 신뢰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농촌진흥청은 시험담당자 교육을 통해 시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험연구기관의 시험수행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